

전북 기업 미국 시장 판로 개척 기대

전북특별자치도,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 간담회 갖고 글로벌 경제교류 확대 협력 방안 모색

전북특별자치도(도지사 김관영)는 29일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회장 이경철, 이하 미주총연)와 간담회를 통해 양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하고, 글로벌 경제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양 기관은 지난 2022년 11월 미주총연이 전라북도를 방문해 업무협약 체결한 이후 상호방문과 업무협약의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그동안의 성과를 공유하고 앞으로의 협업방안에 대해 논의하며, 전북 기업들의 미국 시장 진출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약속했다.

미주 총연은 오는 10월 전주에서 열리는 제22차 세계 한인 비즈니스대회에 역대 최대 규모인 2백여 명이 참가



29일 전북특별자치도청을 방문한 이경철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장(왼쪽에서 다섯번째)을 비롯한 회장단이 김관영 도지사와 글로벌 경제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갖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다고 밝히, 이를 통한 전북 글로벌 위상 강화와 참가 기업들의 네트워크

방문해 지역 상공인들과 만남의 자리를 갖고, 경제교류 확대와 상호 협력 방안 등에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양 기관은 경제 무역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해 전복도와 미주총연의 네트워크를 민간으로까지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미주 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대미 수출 확대, 투자 유치,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전북 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미주한인상공회의소 총연합회는 미주 78개 지역 상공회의소로 구성된 비영리 경제단체로 미국 전역 30만 한인 소상공인의 이익을 대변하고 한인 동포 기업들과 한국 수출입 업체의 미국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이만호 기자

주거취약계층 주거복지 향상

전북자치도, 그린리모델링 사업 세대 방문·선물꾸러미 전달

전북특별자치도는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진행된 주거취약계층 세대를 찾아 생활편의 등 주거환경을 꼼꼼하게 재점검했다. 또, 추석을 앞두고 행복한 명절을 기원하며 생필품 등 선물꾸러미도 전달했다.



전북자치도 주택건축과는 29일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 사업으로 주거환경을 개선했던 익산시 평화동 4인가구 이모씨(41) 세대를 방문해 불편 사항 유무 등을 재확인한 뒤 생필품 등이 담긴 '행복드림' 꾸러미를 전달했다.

저소득층 그린리모델링은 지난 2006년 전북에서 최초로 시작해 전국으로 확산된 모범사례로, 단열재 보강, 고성능 창호 교체, 화장실 및 주방 개보수 등 에너지 성능 개선 및 개보수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복지 향상과 생활편의 증진 등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도에 따르면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951억 원이 투입돼 도내 14개 시·군 28,334가구의 주택이 새로운 모습으로 재탄생했다.

올해도 도내 530가구에 32억 원 을 투자할 예정이며, 8월 현재 429 가구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이 완료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가구당 지원규모가 당초 5백만 원에서 6백만 원으로 확대됐으며 대상 가구도 화

재와 재해·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가구도 포함돼 지원되고 있다.

실제, 화재 피해로 단독주택 지붕과 주택 내부 일부가 소실된 익산시 소재 가구에도 10월 중에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방문 가구 세대주인 이모씨는 "그동안 세면대가 없는 화장실과 노후된 싱크대로 불편을 겪어 왔었다"며, "이 사업으로 주방 싱크대와 화장실의 보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불편함이 크게 해소됐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한편 지난해 8월 사업 수혜자 225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5.6% 이상이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해 주거복지 개선효과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올해 만족도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최병만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저소득 취약계층일수록 집수리에 대한 부담이 커 불편을 참고 생활하기 일쑤다"며, "앞으로도 주거취약계층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맞춤형 지원에 힘을 더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12년 연속 금자탑

경진대회서 김제시 '지평선연미향' 우수상 수상

전북특별자치도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2024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김제시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이 우수상을 수상하며, 12년 연속 수상이라는 금자탑을 쌓았다.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우수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대회가 개최된 이래

농촌융복합산업 육성을 위해 꾸준히 노력해 온 결과 전국에서는 유일하게 12년 연속 수상 성과를 달성, 명실상부한 농촌융복합산업 선도지역임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전국 2,500개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를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경진대회는 어느 때보다도 치열한 경쟁을 벌였으며, 지역 연계성, 사업성과, 경영체 역량, 발전 가능성 등 엄격한 평가항목을 통해 서면·현장·발표심사를 거쳐 최종 수상이 결정됐다.

농업회사법인 지평선연미향(유)은 자체농장에서 생산한 농산물과 지역 농가와 계약재배를 통해 공급받은 신선한 재료로 김치류, 조림류, 부각류 등 60여 가지의 반찬과 3종류의 도시락을 생산 판매하며, 온·오프라인으로 소비자와 소통을 통한 고객확대 노력 등 지역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지역 상생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됐다.

뿐만 아니라, 매년 수익의 일부를 지역 소외계층에 기부하며 사회공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시상식은 농식품부에서 30일 서울

양재 aT센터에서 개최하고, 최종 선정된 전국 우수사례 6개 경영체는 해당기간 진행되는 에이팜쇼(창농·귀농고향시박박람회, 8월 30일~9월 1일) 내 홍보부스를 운영한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12년 연속 수상은 농촌융복합산업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앞으로도 농촌융복합산업을 통해 농촌의 활력을 되찾고, 농가소득을 증대 시키며,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도내 도시가스 요금 평균 0.66% 인상

전북특별자치도가 오는 9월 1일부터 도내 도시가스 평균 요금을 0.66% 인상된다고 밝혔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열고, 전북도시가스 0.61% 인상, 전북에너지서비스는 1.37% 인상, 군산도시가스는 동결을 내용으로 도시가스 소매공급 인상안을 조정·심의했다. 주택용 기본요금도 동결된다.

이에 따라, 4인 가족을 기준으로 월 50사용 시 전북도시가스는 276원, 전북에너지서비스는 660원 인상되며, 군산도시가스 요금은 동결된다. 소매요금 기준으로는 평균 4.33% 인

상을 확정하고 전북도시가스 4.78%, 군산도시가스 동결, 전북에너지서비스 9.63% 인상으로 결정했다.

도시가스 소비자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도매요금(90.7%)과 도시가스사의 소매 공급비용(9.3%)을 합산하여 결정되며, 도매요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월 승인·고시한다. 소매 공급비용은 시·도별로 매년 한 차례 조정되어 소비자 요금에 반영된다.

소비자 정책위원회는 이날 예상 공급 물량, 지역, 배관설비, 인건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도시가스 소매 공급비용을 인상하기로 했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폭염·태풍 대비 대응 현장 점검

전북특별자치도는 최근 폭염 장기화와 제10호 태풍 '산신'의 북상에 대비해 폭염 저감 시설과 침수 우려 취약 도로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고 29일 밝혔다.

운동목 도민안전실장은 폭염 저감 시설인 그린 통합 쉼터와 수해 취약지역의 자동 차단시설을 점검하기 위해 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그린 통합 쉼터는 대중교통 이용자들이 한여름 동안 시원한 바람과 더블어 와이퍼 및 스마트폰 충전 등의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설로 버스 승강장을 대체하여 설치된 폭염 저감 시설이다.

현장 점검에서는 그린 통합 쉼터의 냉방 시설 가동 상태와 실내 온도 등을 꼼꼼히 확인하고, 이용자들의 불편 사항을 점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러한 시설들을 무더위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고 폭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중요한 인프라로 삼아 지속 확대하고 철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이어 인근 침수 우려 취약도로로 설치된 자동 차단시설의 관리 상태도 점검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올해 20개소의 자동 차단시설을 설치로 총 32개소의 침수 우려 취약도로에 해당 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만호 기자

전북자치도, 바닷길 이용한 중국 관광객 유치 힘써

전북특별자치도는 29일 중국 칭다오에서 찾아가는 전북 관광 설명회를 개최하며 중국 관광객 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석 전북자치도 문화체육관광국장과 도의외 김경기 의원, 김이재 의원이 현지를 방문해 중국 여행사 관계자들에게 전북 14개 시군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도내 유일의 국제항로인 석도국제해협과 부안 크루즈항로를 적극 홍보했다.

한국관광 데이터랩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약 221만 명의 중국 관광객이 한국을 방문해 전체 방문 관광객 중 28%를 차지하며, 방문 국가 중 1위를 기록했다. 또한, 같은 기간 전북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30만 명 중 중국 관광객은 5만 명에 달해,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러한 배경에서 전북자치도는 중국을 주요 타겟국가로 설정하고, 유치마케팅에 집중하고 있다.

이번 설명회를 통해 전북자치도는 중국 여행사와 협력하여 가을철 석도국제해협을 활용한 전북 관광상품을 기획하고, 중국 관광객 모객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했다.

이와 함께, 한국관광공사 칭다오사무소를 방문해 하반기 주요 행사와 마케팅 일정을 공유하며, 2025년 협력사업 발굴을 통해 공동 관광 마케팅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도는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중국 칭다오에서 열린 제12회 국제크루즈포럼에도 참가해, 전북-인천-중국 크루즈항로 개설 및 중국 크루즈 관광객 유치를 위한 '크루즈 국제협력 칭다오 선언문'을 체결했다. /이만호 기자

장수군 공고 제2024-86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공고

「도로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변경)과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자 하오니, 이해관계가 있는 분이나 단체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의 개요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 ~ 2030. 12. 31.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명)	도로 명칭	사업예정지 (위치)	사업내용	사업시행자의 명칭(성명) 및 주소
백운~천천(1단계) 지방도 확포장공사	지방도 제726호선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 일원	• 연장 : 2.5km • 폭원 : 9.0m (확포2차로)	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완산구 호자로 225)

2. 도로구역 결정(변경) 사유 및 면적

- 지방도726호선 중 장수군 천천면 비룡리 ~ 진안군 백운면 노촌리(2.5km) 구간으로 지방도 단선구간 도로를 신설하여 주민불편 해소 및 접근성 개선으로 교통편의를 증진하고 관광활성화 및 지역 균형발전 도모하고자 함.

3.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면도

- 계획 생략(열람장소 비치)

4. 열람 및 의견서(이의신청) 제출

- 기간 : 신문 게재일로부터 15일간
- 장소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 10)
- 의견제출(이의신청) 방법 :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작성·제출(열람장소 의견서 비치)
- 기타 문의사항 : 장수군청 건설교통과 건설행정팀(☎063-350-255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5. 기타사항

- 편입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에 대하여는 개별통지한 주소나 거주 불명 등으로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본 공고를 갈음함.

2024년 8월 14일 장수군 수

“전주매일신문은 항상 도민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